



그룹 방탄소년단이 5~6(현지시간)일, 8~9일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시작으로 전 세계 16개 도시에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스타트 공연장 장사진 등 열기 '후끈'

티켓 매진·완판... 3천800달러에 팔리기도 LA 시작으로 전 세계 16개 도시 33회 공연

방탄소년단이 5일(현지시간) 오후 8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월드투어의 첫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이 펼쳐지는 LA 스테이플스 센터 앞에는 팬들이 텐트를 치고 며칠 밤을 새우며 북새통을 이뤘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도 만반에서나마 멤버들을 보기 위해 공연장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 팬은 빌보드와 인터뷰에서 "여기서 4일간 기다렸다. 내 친구들도 꽤 오래 있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팬은 "방탄소년단을 보려고 니카라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왔다. 몇 달간 계획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노래 중 어느 무대가 가장 기대되는지는 리포터 질문에 한 팬은 즉석에서 '불타오르네' 춤을 춰 다른 팬들의 환호성을 끌어냈다.

암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미국 C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시티를 인용해 매사추세츠에 사는 팬이 방탄소년단의 시카고 공연 티켓 1장을 3천849달러 38센트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암표 시장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은 1장당 평균 823달러에 팔리며, 이는 미국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2018 레퍼토리 투어 티켓'에 견줘 두 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데일리 스위트가 방탄소년단보다 덜 유명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스위프트는 훨씬 많은 도시, 넓은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지만 방탄소년단은 공연 횟수가 적고 공연장 규모도 작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해석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미(Army) 사이에선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다.

LA 공연은 티켓 대부분 300달러가 넘는 고가이지만, 온라인 발매 10분 만에 매진됐다. 오는 10월 6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콘서트 표 4만 장도 예매 시작과 동시에 완판됐다. 시티필드는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 홈구장으로 폴 매카트니, 제이지, 비운세, 레이디 가가 등 톱스타가 선 무대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미국에서 '사회 현상' 급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국 방송가의 쇠퇴경쟁도 치열해졌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LA 체류 기간 언론 인터뷰보다는 공연에 매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BS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이자 배우, 프로듀서인 제임스 코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방탄소년단이 우리 쇼에 나와 세렌디피티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며 "가폴 가라오케(프로그램 속 코너명)에서 부를 수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나 같은 날 미 ABC7 방송의 연예 리포터 조지 페나치오는 "이 소식을 알리게 돼 유감이지만, 오늘 방탄소년단이 LA에 있는 동안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트윗했다. 페나치오는 "방탄소년단은 그들 쇼에 집중하길 원하고, 콘서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 그래도 난 여러분을 위해 콘서트를 열심히 취재하겠다"고 적었다.

방탄소년단은 5~6일, 8~9일 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시작으로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총 33회 공연을 펼친다. 11일에는 그레미 박물관 초청으로 LA에서 미국 팬들과 만나는 '방탄소년단과의 대화'(A conversation with BTS)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김남길·한지민, 부산국제영화제 MC

다음달 4일 개막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내달 4일 개막하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남길과 한지민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나쁜 남자', '상어', '명불허전'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영화 '살인자의 기억력'(2017)에서는 살인범 역할로 분해 원작

소설의 캐릭터를 뛰어넘는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올해 하반기 크랭크인하는 공포영화 '클로젯' 출연을 확정하고 퇴마사 캐릭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영화 '정연'(2005)으로 스크린 데뷔 후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 '플랜맨'(2014), '밀정'(2016) 등 시대 배경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다.

최근에는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서 동분서주 위경맘 '우진' 역을 맡아 현실감 넘



김남길 한지민

치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미쓰백'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해 관객들을 만난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9월 7일 (음력 7월 28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子 60년생: 자주 부채질하는 사람은 무시하자. 72년생: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고 믿을 수 없다. 84년생: 혼자 해야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96년생: 느긋한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午 66년생: 변장의 기운이 있으니 즐거운 하루다. 78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생기는 날이다. 90년생: 시간을 아끼는 성실한 태도를 취하라. 02년생: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히 하지말자.
 丑 61년생: 본인 덕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73년생: 참고 기다리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85년생: 어린 마음에 불안함이 가중될 수 있다. 97년생: 어찌피 부딪혀야 한다면 오늘 해보자.	 未 67년생: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떠밀려 하더라도 추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니 낙담마라. 79년생: 길을 나설 땀 흘려왔던 보고 걸자. 91년생: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寅 62년생: 경쟁보다 상황을 관망하고 기다리자. 74년생: 무엇이든 잘 된단 생각이 길할 것이다. 86년생: 진솔한 대화는 기술로 맞서보자. 98년생: 빗대서라도 본인의 마음을 다 말하라.	 申 68년생: 이익보다 명예를 먼저 생각함이 좋다. 80년생: 본인의 속을 보이는 행동을 삼가야 공들여 남추는 형상을 막을 수 있다. 92년생: 지나친 욕심은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卯 63년생: 나이에 맞는 복장과 행동을 갖춰라. 75년생: 돈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하자. 87년생: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말자. 99년생: 오늘은 돈을 조금 써야 즐거울 수 있다.	 酉 69년생: 성급한 판단은 후회로 이어지기 쉽다. 81년생: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인정받겠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고민에 함께 공감한다면 생각보다 더 큰 덕이 쌓여있을 것이다.
 辰 64년생: 원망을 살 만한 일은 애초에 피하자. 76년생: 희비가 엇갈려도 대범하게 받아들이자. 88년생: 늦게까지 밖에 다니지 않도록 하자. 00년생: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도 개의치마라.	 戌 70년생: 결론은 하나인데 생각이 많지니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차분히 행하자. 82년생: 적게 얻고 많이 쓰니 이익이 별로 없다. 94년생: 보다 성숙한 행동으로 주위를 포용하라.
 巳 65년생: 남보다 가족에게 먼저 신경써야한다. 77년생: 빌려달라는 부탁은 거절함이 좋다. 89년생: 변함없는 초지일관 자세가 필요하다. 01년생: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인지 살펴보자.	 亥 59년생: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적응해야 한다. 71년생: 경험자의 조언이 모두 득이된 건 아니다. 83년생: 갑작스럽게 판단 말고 시간을 가져라. 95년생: 생각지 않는 지출이 생기기 주의하라.

THE GREAT BATTLE OF MYEONGNYANG FESTIVAL

2018 명량대첩축제

2018. 9. 7 (금) ~ 9. 9 일 3일간 해남군 우수영관광지·진도군 녹진관광지 일원

핵심 프로그램 안내 ※ 시간은 사정에 의해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명량해전 재현
2018.9.8 (토) 17:15 ~ 17:45
울돌목 바다

블랙이글스 에어쇼 축하비행
2018.9.8 (토) 17:45 ~ 18:00
울돌목 바다 상공

명량대첩축제 축하방송
2018.9.8 (토) 19:30 ~ 21:00
해남군 우수영 명량무대

명량 미디어 파사드
2018.9.7(금) ~ 9.8 (토) 저녁
해남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해군 군악대 가을음악회
2018.9.7(금) ~ 9.9 (일)
해남 우수영 성문광장

이모르페티 김연자 외

| 주최 | 전남남도 | 해남군 | Jindo 진도군 | 주관 |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어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 협찬 | 보해양조